

소비자 처분행동 유형과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 가사용 내구재의 처분행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atterns of Consumer Disposition Behavior and Influential Variables

- Focusing on Durable Goods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교수: 朴明姬

Dept. of Home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Prof.: Myung-Hae, Park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박사과정: 鄭朱媛

Dept. of Home Economics

Dongguk University

Doctoral Course.: Joo-Won, Jung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환경문제와 직결된 소비자들의 가사용 내구재 처분행동유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들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이다. 연구대상은 분당·일산지역에 거주하는 주부 600명이며, 최종분석에 사용된 자료수는 512부이다. 연구결과, 재활용 처분행동중 이타적 처분행동이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가구류가 전자제품류보다 폐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처분행동유형은 인구통계적 변수와 환경문제에 관한 의식과 의미있는 관련이 있음을 보였으며, 개인적 가치성향중에서는 역사회적 성향이 재활용 처분행동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대량생산에서 대량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사회구조는 소비의 급증과 자원남용을 초래했고, 그 결과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자원고갈과 함께 자원의 이용과 폐기 등 처분행동 후 나타나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오염은 사회의 산업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소비행동(자원의 획득, 사용, 처분을 모두 소비행동으로 볼때)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이 환경오염 및 자원활용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

물질적 소유와 편리함에 대한 무분별한 사고는 소비자들의 소비관행을 지나치게 자원낭비로 흐르게 하였으며, 그 중에도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음식물, 의복, 가사용 가전제품 등의 사용이나 처분 활동은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구성 소비재인 TV, 냉장고, 세탁기, 침대, 소파, 자동차 등은 수년전만 하더라도 생활 필수품 이라기 보다는 경제적 여건을 나타내는 제품들로 인식되었는데, 우리 사회의 경제적 지위향상, 소득수준의 상승 등으로 인해 이들 내구성 소비재는 내구성 본연의 의미보다 하나의 유행성을 지닌 상품이 되었다¹⁾. 이에 따라 시장구조도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재구매를 부추기고 더불어 과시적인 소비행태를 촉진

*1993년도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식도 새로운 상품에 대한 강한 소비욕구로 인하여 과소비적인 경향마저 나타나게 되었다.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이러한 경향은 단기간 사용후 쉽게 버리게 되어 대형쓰레기를 유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소비자가 환경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환경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품을 구매·사용·처분하는 ‘소비행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구매활동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온 반면, 사용과 처분활동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의식전환과 이를 위한 환경교육 즉, 근본적인 소비자의식의 변화를 통해 불합리한 처분행동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처분행동에 관한 소비자의식과 행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가정내에서 환경문제와 직결된 소비자들의 처분행동 유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 봄으로써, 처분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소비자환경교육의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아울러 소비자특성에 따른 재활용 및 환경보호 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처분행동의 정의 및 유형

지금까지의 소비행동연구는 주로 구매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사용과 처분행동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처분행동연구는 1976년 소비자 연구자(Jacoby, 1976; Nicosia, Mayer, 1976)들에 의해 소비행동의 중요한 측면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처분행동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Nicosia(1976)는 “제품을 통한 욕구를 충족시킨 후의 처리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행동을 구매행동(buying activities), 사용행동(use activities), 처분행동(disposing activities)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관련된 제도와 규범들이 이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하였으며, 다른 여타의 소비행동과는 달리 처분행동은 상당부분이 가족내에 남아있는 영역으로 보았다. Burke, Conn, Lutz(1978)는 처분행동이란 “제품이 그 원초적 목적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가계가 그 제품에 적용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시장세분화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개인의 인성적 특성으로 소비자를 분류하여 소형전자기구 품목을 대상으로 처분행동의 대안을 조사하였다. 처분행동 대안은 제품폐기, 판매, 자선기관에 기증, 친구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줌, 새 상품 구입시 헌것을 주고 그 값을 인정받음(trade in), 당분간 보관함으로 나타났으며, 처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생활양식과 심리적 변수들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Jacoby(1976)는 개별소비자에서 이루어지는 중요 처분행동의 개념적 분류를 개발하고 소비자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에 는 의사결정자의 심리적 특성, 제품의 고유한 특성, 제품의적 상황요인들이 포함된다.

Debell, Dardis(1979)는 대표적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을 택하여 그들의 처분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세탁기는 성능부진 및 작동불능이 처분의 주 이유였고 냉장고는 스타일의 낙후가 처분이유임이 나타났다.

그 이후 Hanson(1980)은 처분과정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소비자행동의 과정모델을 따라서 처분행위에 수반되는 의사결정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식화하였다. 처분과정은 문제인식, 정보탐색 및 평가, 처분결정, 처분후 결과의 순서로 진행되며 문제인식이란 처분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는 단계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보탐색과 대안의 평가 과정을 거쳐 하나의 처분방법이 결정된다.

처분결정이란 처분행동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처분행동은 제품의 유지(계속 사용, 목적변경 사용, 보관), 제품의 영구적 처분(버림, 기부, 판매, 교환), 제품의 일시적 처분(대여, 임대)등으로 나눌

1) 각 제품의 연도별 보급율은 다음과 같다.

TV : 1970년 6.4% 1980년 86.7% 1990년 97.2%
 냉장고 : 1970년 2.2% 1980년 37.8% 1990년 93.1%
 세탁기 : 1975년 1.0% 1980년 10.4% 1990년 64.3%
 (한국의 사회지표(1984, 1992), 경제기획원)

수 있다. 처분결정 이후의 결과는 미래의 처분행동에 영향을 주는 바 처분행동 후의 긍정적 느낌은 미래의 처분행동을 강화시키지만, 부정적 느낌은 오히려 처분행동에의 불만과 후회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처분행동의 유형 연구를 살펴보면, Harrell, Mcconocha(1992)는 처분행동을 크게 남에게 주거나 (giving away), 기부(donate)하는 형태의 이타주의적인 행동과 보관(keeping), 폐기(Throwing away)와 같은 형태인 비이타주의적 행동으로 분류하고, 가치 부여가 보통수준인 제품에 대한 각 처분행동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그들은 Hanson의 '처분행동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기초로 소비자를 처분행동 측면에서 계획적인 처분자와 비계획적인(즉흥적인) 처분자로 구분하였는데, 계획적인 처분자란 처분행동시 상당한 조직성을 가지고 가정내 제품의 이용 가능 여부 결정을 미리 계획적으로 행하는 소비자를 의미하며, 비계획적인(즉흥적인) 처분자란 가정내 제품의 이용 가능 여부 결정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처분할 당시에 즉흥적으로 행하는 소비자이다.

2. 재활용 처분행동 (이타주의 처분행동)

Smith(1979)는 구체적으로 자비로운 기부행동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며, Schwartz(1970, 1973, 1977)는 이타주의 처분행동의 사회·심리 모델을 발전시켰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한 개인의 이타주의적인 처분행동은 사회구조 내에 존재하는 사회 규범의 영향을 받아 개인적 규범을 형성하게 되고, 이 개인적 규범은 결과의 인식과 책임감 귀속에 의해 행동으로 실행된다는 것이다. 이는 만약 개인적 규범이 있더라도, 결과의 인식과 책임감 귀속이 약하다면 실행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Nielson과 Ellington(1983)은 처분행동에서 나타나는 이타주의 행동에 대해 개념적 틀을 구체화 하였는데, 재활용행동은 소비자가 사용한 제품을 모아두고

분류하며 운반하기까지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타적인 면이 없으면 행해지기 어려우므로 재활용행동을 이타주의 행동으로 규정하였다.

De Young(1985~1986)은 그의 연구를 통해 내적 동기와 개인적 만족이 재활용하는 처분행동의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밝혔다. 여기서 만족감을 근검절약, 참여, 자부심, 물질추구의 4가지로 보았으며, 처분행동자를 재생이용(recycling)과 재이용(reuse)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두 처분행동을 구분하여 측정한 이유는 재생이용(recycling)과 재이용(reuse) 모두 생태학적 측면에서 책임감있는 처분행동이나 재생이용(recycling) 방법은 쓰레기화하는 과정과 이를 다시 재생시키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재이용(reuse)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재이용(reuse) 처분방법은 직접적으로 시장(market)내에서 소비자들의 소비를 감소시키게 되며, 이는 곧 가정내에서의 쓰레기화되는 물품의 양을 감소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Stern, Dietz, Kalof(1993)는 Schwartz(1970, 1973, 1977)의 모델 중 '결과의 인식(awareness of consequences)' 부분을 인식보다는 신념으로 보았는데, 이는 처분행동후의 결과의 인식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므로 결과에 대한 신념이 더 맞는 개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결과에 대한 신념'을 3가지 요소 즉, 자기자신을 위한 결과의 신념, 타인을 위한 결과의 신념, 자연환경을 위한 결과의 신념으로 확대시켰으며, 이 신념들은 각 개인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며, 부여된 가중치의 크기에 따라서 행동의 동기 부여가 정해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처분행동을 크게 재활용과 비재활용 행동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재활용 처분행동은 가격의 개념이 포함된 경제적 처분행동과 타인에게 사용을 전가시키는 이타적 처분행동으로 보았으며, 비재활용 처분행동은 처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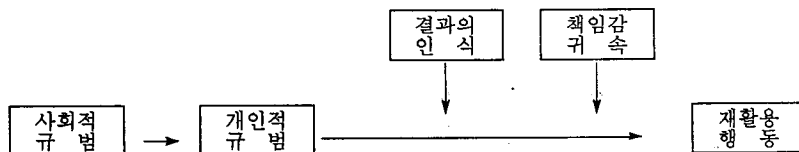


그림 1. 이타주의 처분행동 모델.

유와 관련지어 사용가능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결과와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폐기하는 처분행동과 보관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보관을 비재활용 처분행동으로 본 이유는 잠재적으로 다음 사용자에게 의해 이용되어 질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으나, 처분행동자체가 비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Harrell, Mcconocha(1992)의 의견에 연구자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3. 인구통계적 변수와 처분행동

처분행동 유형과 인구통계적 변수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Burke, Conn, Lutz(1978)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처분행동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보관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Peter(1974)의 연구에서는 재활용센터 이용의 여부는 소득수준과 매우 강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의 직업과 주부의 교육수준도 재활용센터 이용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rbuthnot(1977)는 재활용센터의 이용을 지표로 하여 환경의 의식한 소비자행동을 측정하였는데, 연구결과 교육, 환경지식, 보수주의 및 자기통제부족의 4개 변수들이 환경을 의식한 소비자행동의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Harrell, Mcconocha(1992)의 연구에서는 각 처분행동별 인구학적 특징을 밝혔는데, 보관행동과 폐기행동은 연령, 거주년수와 부적관계이며, 교육수준에서도 의미있는 차가 나타났다. 기부행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많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남에게 주는 행동은 거주년수와 정적관계이며, 교육수준과는 부적관계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정희(1991)는 울산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기능의 수행수준을 조사한 결과, 성, 월평균 가계소득, 교육, 생활양식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안길상 외 3인의 연구(1993)에서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적인 소비자의 특성 연구결과 성별, 혼인여부, 연령, 학력은 재활용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녀수, 직업, 소득수준, 사회계층, 주거형태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4. 개인적 가치 성향 변수와 처분행동

개인적 가치는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좋고, 옳고,

적절한지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므로, 처분행동을 설명함에 적절한 변수로 밝혀지고 있다.

Stampfl(1978)은 시대의 변천과 소비자 가치지향에 대한 태도변화를 기술하고 산업사회의 소비자 가치는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어 미래사회유지에 바람직한 소비자의 가치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De Young(1986)의 연구에서는,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태도와 행동이 풍요롭고, 물질적이며, 안락한 삶을 중요시하는 가치관과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근검절약 의식과는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opper, Mccarl Nielsen(1991)의 연구에서는 재활용하는 처분행동은 남을 돕고 싶은 이타주의(altruistic), 사회적 공헌과 같은 익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arrell, Mcconocha(1992)의 연구에서 개인적가치가 처분행동의 중요한 근거로 밝혀졌는데, 연구결과 경제적 이득을 바라는 이들은 보관, 판매 처분행동을 많이 선호하는 반면 기부 및 남에게 주는 처분행동은 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타주의 경향을 가진 이들은 기부나 남에게 주는 행동에 강한 정적관계를 나타내었다. 폐기와 보관은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드는 처분방법으로 처분시 편의성을 추구하는 이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강이주, 박명희(1990)의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생활양식은 개인적인 특성에 속하는 욕구, 태도, 자아개념, 가치관, 신념 등의 제 요인들이 구체적인 행동이나 관심의견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개인적 가치 변수 연구와 유사하다고 볼수 있다. 연구 결과, 편의주의형은 제품이 유행에 뒤떨어졌거나 사용에서 오는 권태 때문에 대개의 제품을 영구처분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였고, 근면성실형과 생존유지형은 제품의 유지를 주로 택하며 경우에 따라 일시적 처분방법을 택하지만 영구처분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5. 환경문제에 관한 의식 정도와 처분행동

한 개인의 처분행동은 행동후에 나타나는 결과의 인식과 책임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Schwartz, 1970, 1973, 1977). 즉 처분후 결과의 형태로 나타나는, 환경문제 관심 정도가 자원절약 및 재활용하는 처분행동을 하는 중요 동기 요소로 나타났다(Hopper,

Mccarlinielsen, 1991).

Henion(1972)의 연구에서 환경을 의식하는 소비자를 특정제품이나 용역의 구매, 소유, 사용 및 처분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식적이고 일관성있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 태도, 의식 및 행동에 반영시키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Weigel, Weigel(1978)의 연구에서는 환경의식과 환경문제에 관한 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De young(1986)의 연구에서 재활용은 시간소비, 불편성의 이유 때문에 행해지기 어려우나 소비자는 재활용후 느껴지는 환경보존적 측면에서의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연구를 고찰해 보면, 서정희(1986)의 연구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행동의도는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의 주관적 규범과 소비자의 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밝혔다. 이승신의 2인(1993)의 연구에서도 환경의식 변수와 환경보존능력간에는 정적 관계로 결과가 나타났으며, 환경보존 지식과 태도는 환경보존기능을 매개하는 변수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환경의식은 환경문제 해결에 적합한 사회구조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개체로서 생활소비양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중류층 가계의 가사용 내구재(전자제품류, 가구류)의 전반적인 처분방법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처분행동은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3〉 개인적 가치 성향에 따라 처분행동은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4〉 환경문제에 관한 의식 정도에 따라 처분행동은 차이를 보일 것인가?

2. 용어의 정의

1) 처분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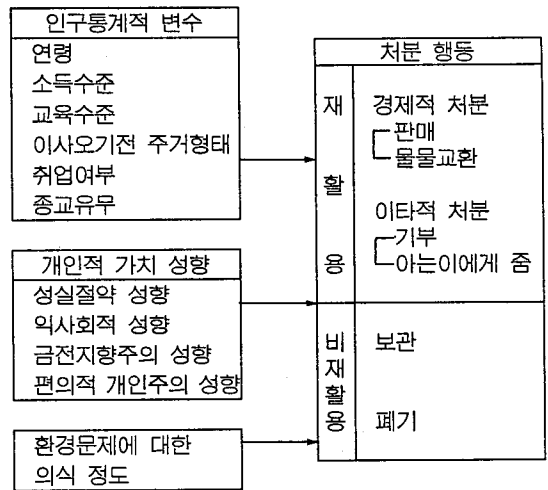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1) 처분행동

원초적 목적의 기능을 상실하였을때 소비자가 그 제품에 적용하는 행동

(2) 처분행동 유형

크게 재활용과 비재활용 처분행동으로 분류하고, 재활용은 계획적이고 책임있는 처분행동인 경제적 처분행동과 이타적 처분행동으로 보았으며, 비재활용 처분행동은 보관과 폐기로 보았다. 여기서 폐기는 처분이유와 연관지어 사용가능한 제품을 버리는 경우만을 선택하였는데, 즉 폐기행동을 선택한 응답자 중 처분이유에서 '오랜 사용기간으로 제품의 수명이 다 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비재활용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2) 개인적 가치

(1) 성실절약 성향

일상생활과 소비행동(구매, 사용, 처분 개념으로 볼때)에 있어서 절약성이 높은 가치 성향

(2) 편의적 개인주의 성향

일상생활과 소비행동에 있어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가치 성향

(3) 익사회적 성향

일상생활과 소비행동에 있어서 타인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가치성향

(4) 금전지향주의 성향

일상생활과 소비행동에 있어서 재화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가치 성향

3)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

재화와 용역의 소비과정에서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인식하고 개인의 욕구와 사회의 복지까지 고려하는 인식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이용한다. 질문지는 인구통계적 변수, 개인적 가치 성향,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 그리고 가사용 내구재 제품의 처분방법으로 구성되었다.

1) 인구통계적 변수

응답자의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이사오기전 주거형태, 취업주부, 종교유무로 구성하였다.

2) 개인적 가치 성향

개인적 가치성향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생활양식조사에서 사용하는 문항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특성에 속하는 욕구, 태도, 자아개념, 가치관, 신념등의 제 요인들이 구체적인 행동이나 관심의견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이 생활양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양식은 개인의 가치관과 처분행동을 예측할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가치성향을 성실질약, 편의적 개인주의, 익사회적, 금전지향주의로 나누고 각 영역 문항을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각 가치영역간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0.25에서 2.79로 낮은 수준이므로 상호배타적이라고 볼수 있다. 각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인 Cronbach 는 0.7이상으로 나타났다.

3)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 정도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 정도는 총 10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 정도가 강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인 Cronbach 는 0.84로 나타났다.

4) 각 제품별 처분방법

제품은 가정에서의 대표적인 내구재 품목인 세탁기,

TV,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류와 가구류인 옷장, 침대, 쇼파로 선정한다. 선정된 각 제품에 대한 처분방법은 6가지 항목으로, 처분이유는 구체적 대안 6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각 제품별로 처분이유와 처분방법을 대안들 중에서 하나 선택하게 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쳐 본조사는 1993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소득수준이 중류층이며, 처분경험이 있는 가계의 주부를 표집하기 위하여, 신도시지역의 일산, 분당의 주부 600명을 의도표본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이중 539부를 회수하여, 이 가운데에서 부실기재된 것은 제외하고 최종 512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PC+ PACKAGE를 이용하여, 인구통계적 변수와 처분행동과의 관계, 환경문제 인식 정도와 처분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개인적 가치 성향이 처분행동 선택 차이를 어느정도 설명해 줄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해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신도시 지역 분당·일산의 조사대상자 주부 분포도를 연령면에서 보면 30대(37.7%), 40대(46.3%), 50대이상(16%)이며, 교육수준에서는 고등학교(57.0%), 대학교이상(27.5%), 중·국민학교(15.5%)순이었다. 소득수준면에서는 각 분류별로 골고루 구성되어 있으며, 주부의 취업여부는 취업주부(30.9%), 비취업주부(69.1%)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유무에서는 종교가 있는 이가 66.6%, 종교가 없는이가 33.4%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도시 아파트단지로 이사오기전 주거형태에 관한 질문에서는 단독주택이 53.9%이며, 아파트가 46.1%이다.

2. 전반적인 처분행동 유형

중류층 가계의 전반적인 처분행동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사용 내구재 제품인 가전제품류, 가구류에

대한 각 제품별 처분행동과 처분이유 분포를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 파악하였다.

1) 처분행동 유형

내구재 제품의 처분행동 유형을 살펴보면 재활용 처분이 가전제품류 86.8%, 가구류 76.9%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비재활용 처분행동은 가전제품류 13.2%, 가구류 23.1%로 나타나고 있다. 재활용 처분행동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처분행동을 살펴보면 이타적 처분행동이 65%를 상회하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 처분행동은 가전제품류 20.5%, 가구류 11.8%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쓰레기 문제와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치는 폐기 처분행동은 가구류가 14.2%로 전자제품류의 4.8%보다 3배 정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관은 두 제품류 모두 8%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소비자의 전반적인 처분행동은 친척이나 아는 이에겐 줌으로써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품목별 처분행동을 보면 가구류가 전자제품류보다 폐기율이 더 높은 반면 중고매매 형태의 경제적 재활용 처분은 가전제품류보다 오히려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사용 내구재의 처분유형 결과는 재활용 처분방법의 제한된 범위를 보여주며 이에 따른 대형 쓰레기의 발생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측에서는 사용후의 수거 및 재활용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폐기물 회수 처리 비용 예치금 제도의 범위를 TV, 세탁기 뿐 아니라 대형 가전제품, 가구류에도 적용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자원의 낭비 및 쓰레기 유발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다.

2) 처분이유

전자제품류, 가구류 모두 '오랜사용으로 수명이 다 되어'라고 응답한 경우가 처분이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나, '새집에 알맞는 생활을 위해' '오랜 사용으로 싫증이 나서'(가구류의 경우)와 '크기.용량이 부족해서'(전자제품류의 경우: 특히 냉장고)의 응답도.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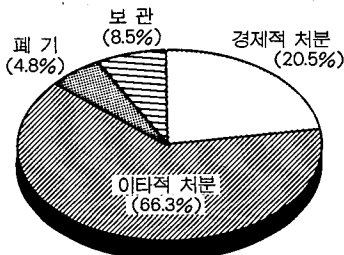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소비자는 조금만 손질하여 계속 사용할수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싫증이 나서 또는 새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등으로 쉽게 버리고 새로 구입하는 과소비 풍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전제품의 '사용기간 5년 이내에 잦은 고장으로'가 적잖은 비율을 차지하는 결과로 보아, 기업측의 내구성 소비재의 내구성 미달과 제품 품질에 대한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이 상품의 대형화, 패션화를 앞세워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부추기기 보다는 제품의 내구성과 기능적인 측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3. 인구통계적 변수와 처분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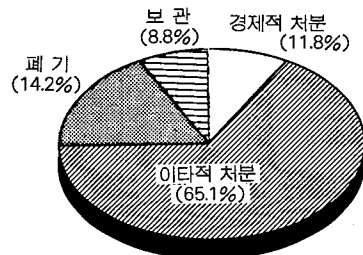
주부의 취업여부 변수를 제외한 인구통계적 모든 변수가 처분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1) 주부의 연령과 처분행동과의 관계

재활용 처분행동은 40대에서 가전제품류 93.7% 가구류 8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른 연령층에서도 비교적 높은 재활용 처분행동을 보였다. 또한 재활용 처분행동을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재활용의 대부분이 이타적 처분행동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의 집단적인 유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류 처분행동>



<전자제품류 처분행동>

그림 3. 제품별 처분행동 유형.

표 1. 제품별 처분이유

(%)

처분이유 \ 제품	세탁기	T V	냉장고	옷 장	침 대	쇼 파
오랜사용으로 수명이 다되어	177 (48.8)	174 (44.5)	148 (32.2)	124 (34.8)	63 (35.2)	56 (22.5)
오랜사용으로 싫증이 나서	19 (5.2)	19 (4.9)	12 (2.6)	46 (12.9)	21 (11.7)	43 (17.3)
크기, 용량 부족으로	94 (25.9)	90 (23.0)	225 (49.0)	50 (14.0)	27 (15.1)	26 (10.4)
모양, 색, 기능 유행에 뒤쳐	4 (1.1)	15 (3.8)	9 (2.0)	18 (5.1)	2 (1.1)	25 (10.4)
새집에 맞는 생활을 위해	20 (5.5)	41 (10.5)	36 (7.8)	102 (28.7)	64 (35.8)	95 (38.2)
사용도중 찾은 고장	49 (13.5)	52 (13.3)	29 (6.3)	16 (4.5)	2 (1.1)	3 (1.2)

표 2. 인구통계적 변수와 제품별 처분행동 관계

독립변수	전 자 제 품 류		가 구 류	
	χ^2	유의도	χ^2	유의도
연 령	40.698	**	9.261	**
소득수준	13.402	**	22.338	**
교육수준	18.899	**	17.656	**
이사오기전 주거형태	10.193	**	10.460	**
취업여부	0.000	N.S.	0.548	N.S.
종교유무	40.619	**	20.446	**

비재활용 처분행동은 50대의 경우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전제품류 34.1%, 가구류 35.4%로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30대도 가구류의 경우에 21.7%를 차지하고 있다. 비재활용 처분행동을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30대는 폐기 행동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50대의 비재활용 처분행동은 모두 보관행동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재활용 처분행동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보관율이 높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환경오염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폐기율은 높다는 결과를 통해, 사회 및 가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자녀교육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30대 주부의 환경교육을 통한 앞으로의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2) 소득수준과 처분행동과의 관계

재활용 처분행동은 소득수준이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재활용률이 조금씩 낮아짐을

보여주었다. 비재활용 처분행동은 100만원 미만인 소득계층에서 전자제품류 17.8%, 가구류 38.1%로 고소득층보다 2배 이상 많이 차지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전자제품류는 보관하는 경향이 많으며, 가구류는 폐기처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육수준과 처분행동과의 관계

재활용 처분행동은 대졸의 고학력층에서 전자제품류 97.1%, 가구류 90.4%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학력이 낮아질수록 조금씩 낮아지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비재활용 처분행동을 살펴보면, 고졸이하의 학력층은 전자제품류의 경우 폐기처분 경험보다 보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류에서는 폐기처분하는 비율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대졸이상의 고학력층에서 처분경험에 비해 폐기처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고학력층이 재활용

처분행동이 높은 반면, 비재활용 처분행동 중 대형 쓰레기 발생과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폐기처분행동 또한 높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재활용 및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및 행동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각 소비자 단체는 단편적인 처분행동 수정을 위한 교육보다는 소비자의 근본적인 환경의식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할것이다. 즉 우선의 물질적 소유와 편리함보다는 다소 불편하고 수고스러워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가치관 변화를 통한 생활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4) 종교유무와 처분행동과의 관계

재활용 처분행동은 종교가 있는 집단에서 전자제품류 93.8%, 가구류 84.4%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타인에게 주는 이타적 처분행동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를 가진 이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종교단체의 봉사활동이나 바자회 행사 등에 접할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때, 소비자들에게 재활용할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제공함이 재활용 처분행동을 고무시킬수 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종교단체 및 지역단위의 소규모 모임, 중고시장 등의 행사나 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5) 이사오기전 주거형태와 처분행동과의 관계

재활용 처분행동은 아파트에서 지금의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는 경우가 단독주택에서 이사는 경우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전자제품류 92.3%,

가구류 84.3%).

4. 개인적 가치성향과 처분행동

분석결과 가전제품류, 가구류 모두에서 성실절약 성향, 역사사회적 성향, 금전지향주의 성향이 처분행동 시 재활용 집단과 비재활용 집단을 판별하는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는 집단변수(종속변수)가 처분행동시 재활용하는 집단과 재활용하지 않는 집단의 두 집단이므로 최대 1개의 판별함수가 산출되며, 산출된 판별함수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계단위가 정확히 분류될수 있는 비율인 분류정확률(hit ratio)은 가전제품류의 경우 78.31%, 가구류의 경우 71.85%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판별계수와 비표준화된 판별계수를 살펴 보면, 전자제품류와 가구류 모두 절대값이 가장 큰 역사사회적성향이 처분행동시 재활용 여부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임을 알수 있다. 다음으로 금전지향주의 성향, 성실절약 성향순으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상생활과 소비행동에서 타인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역사사회적 가치성향이 처분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쳐, 친척이나 이웃등 아는 이에게 제품을 전가한다거나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폐기될 제품들을 재활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한, 경제성을 추구하는 금전지향주의 성향이 판매나 물물교환 처분행동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자원 재활용에 중요 역할을 함을 알수 있다.

이 두 가치 변수가 재활용 처분행동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결과를 통해, 정부기관 및 각 소비자

표 3. 개인적 가치성향 변수와 처분행동간의 판별분석

	독립변수	Wilks'λ	F 값	유의도
가전제품류	성실절약	0.79	42.99	**
	편의적 개인주의	0.84	0.28E-01	n.s.
	역사사회적성향	0.87	69.43	**
	금전지향주의	0.79	63.77	**
가 구 류	성실절약	0.79	32.64	**
	편의적 개인주의	0.79	0.49E-03	n.s.
	역사사회적	0.91	38.36	**
	금전지향주의	0.79	47.90	**

**P<0.05

단체는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된 제품들을 버리지 않고 가까운 이웃과 물물교환을 할수 있도록 하는 구역단위의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현재 각 단체에서 진행중인 중고매매 시장을 지역단위로 확산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소비자들의 재활용 처분행동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5. 환경문제의식과 처분행동

먼저 환경문제에 관한 의식 정도에 대한 빈도를 알아본후 평균점수를 기점으로 하여 환경의식이 높은 집단, 환경의식이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 정도에 따른 처분행동(재활용, 비재활용)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 정도와 처분행동과는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환경의식이 높은 집단은 전자제품류 96.2%, 가구류 86.8% 비율로 환경의식이 낮은 집단의 경우 보다 재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자원절약 및 재활용하는 처분행동의 중요 동기 요소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라는 Hopper, Mccarl Nielsen(1991)의 연구와 재활용은 환경보존적 만족감 때문에 행해진다는 De Young(1986)의 연구와 일치하는 바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환경의식이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존 측면에서 고취해야 할 중요한 의식변수임을 의미하므로, 소비자에게 환경의식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정부기관 및 소비자 단체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대시민 캠페인 및 시민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환경피해·건강피해·환경보존 문제 등에 관한 각종 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규칙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V. 요약 및 제언

현재 전세기는 자원고갈과 함께 자원의 이용과 폐기 등 처분행동후 나타나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오염은 사회의 산업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소비행동(자원의 획득, 사용, 처분을 모두 소비행동으로 볼때)에 대한 인식이 환경오염 및 자원활용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므로, 문제의 해결은 소비자가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환경의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품을 구매, 사용, 처분하는 소비행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온 반면, 사용과 처분활동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환경문제와 직결된 소비자들의 처분행동 유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재변수들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가사용 내구재의 전반적인 처분행동은 비교적 높은 재활용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친척이나 아는 이에게 줌으로써 사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제품별로 처분행동을 살펴보면 가구류가 가전제품류보다 비재활용 행동인 폐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매매 및 물물교환 처분은 가전제품류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처분이유에 있어서 가전제품류·가구류 모두 '오랜 사용으로 수명이 다 되어'라는 응답이 1/3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가구류의 경우 '새집에 알맞는 생활을 위해서' '오랜 사용으로 싫증이 나서'라는 응답이, 전자제품류의 경우는 '크기·용량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또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둘째,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처분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부의 취업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처분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재활용 행동은 40대의 연령층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에 보다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비재활용 행동 중에서 환경오염과 쓰레기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폐기율은 30대의 연령층에서, 대졸의 고학력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개인적 가치 변수(성실절약 성향, 편의적 개인주의 성향, 역사사회적 성향, 금전지향주의 성향)가 처분행동(재활용, 비재활용)을 설명해 줄수 있는가를 판별해 본 결과 제품 유형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여 주었다.

판별력은 의사회적 성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금전지향주의 성향, 성실절약 성향 순이었다. 즉 재활용 행동 여부는 의사회적 성향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수 있음을 알수 있었다.

내재, 환경문제에 관한 의식 정도에 따른 처분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환경의식이 강할수록 재활용 행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수 있다.

첫째, 가사용 내구재 제품의 처분행동 유형 중 가구류가 폐기율이 높은 반면 중고매매 및 물물교환하는 경우가 낮다는 것은 가정에서 사용되어 지는 내구성 소비재 제품의 대형쓰레기화 발생과 더 나아가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폐기물 회수 처리 비용 예치금 제도의 범위를 TV, 세탁기 뿐 아니라 대형 가전제품, 가구류에도 적용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자원의 낭비 및 대형 쓰레기 유발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처분이유에서는 가전제품의 경우 '크기나 용량이 부족해서'의 응답이 가구류의 경우 '새집에 알맞는 생활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조금만 손질하면 계속 사용할수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새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쉽게 버리고 새로 구입하는 이러한 소비행동은 과소비 풍조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낡은 고장으로 인해(구입기간이 5년이내)'라는 응답에서 기업측이 생산하는 내구성 소비재의 내구성 미달에 대한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할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은 상품의 대형화, 패션화를 앞세워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부추기기 보다는 제품의 내구성과 기능적인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쓰레기 원인제공자로서의 공적 책임의식을 갖고 사용후의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30대 연령층과 고학력층에서 재활용이 많이 행해지는 반면, 환경오염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폐기처분 경향 또한 높다는 점과 환경의식이 강할수록 재활용률이 높다는 결과는 자원재활용 및

환경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각 소비자 단체는 단편적인 처분행동 수정을 위한 교육보다는 소비자의 근본적인 환경의식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환경피해·건강피해·환경보전 문제 등에 관한 각종 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규칙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세째, 종교를 가진 이가 재활용률이 높으며 의사회적 성향과 재활용 여부를 잘 설명해 준다는 연구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정부기관 및 각 종교단체·소비자 단체들은 간헐적인 재활용 행사보다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소규모 단위의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며, 이를 지적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신도시 지역의 일산·분당을 중심으로 의도적 표본추출을 하여 처분행동을 살펴보았으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의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를 현 시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

둘째, 처분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써 수행된 탐색적 성격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관련 변수를 보다 더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래에 행하게 될 처분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의 투입과 이에 따르는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째, 본 연구의 척도의 표준화를 위하여는 좀 더 정교화되고 질적인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사용 내구재 제품의 처분행동을 살펴봄으로써 소비자들의 처분유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는 점과 이를 통해 잘못된 처분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기초자료를 정부·기업·사회단체 및 가정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이주(1989).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 김경미(1986).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소비자행동에 관한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권태준(1990). 환경과 소비자. 한국소비자보호원.
 - 4) 노영화 · 강성진(1991).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2). 환경보전을 위한 가정소비 생활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 5) 박미금(1984). 도시 저임금 취업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 서정희(1986). 환경문제 측면에서 본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서정희(1991).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기능과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9(2).
 - 8) 소비자(1992). 버려지는 가전제품 · 가구류의 대형 쓰레기. 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
 - 9) 안길상 · 정영숙 · 이기주 · 이동섭(1993).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적인 소비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 10) 오연주(1989). 도시 주부의 라이프 스타일과 저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1) 이승신 · 이해임 · 류미현(1993). 환경보존을 위한 소비자 능력. 한국소비자학회.
 - 12) 채서일 · 김법중 · 이성근(1992).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 제 2 판 -. 학원사.
 - 13) 한국의 사회지표(1984, 1992). 경제기획원.
 - 14) 한국환경연감. 제 5 호. 환경처(1992).
 - 15) Arbuthnot, J.(1977). The Roles of Attitudinal and Personality variables in the Prediction of Environmental Behavior and Knowledge. *Environment and Behavior*9, 217-232.
 - 16) Box, Jo M.F.(1983). Extending Product Lifetime : Prospects and Opportunities.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17, 34-49.
 - 17) Brooker, G.(1976). The Self-Actualizing Socially Conscious Consumers.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3, 107-112.
 - 18) Burke, M.W.D.Conn and R.J.lutz(1978). Using Psychographic Variables to Investigate Product Disposition Behavior. Proceedings. *Educator Conference. AMA.* 321-326.
 - 19) De Young(1986). Some Psychological Aspects of Recycling : The Structure of Conservation Satisfaction. *Environment and Behavior*18, 435-449.
 - 20) De Young, Andrew Duncan와 6인(1993). Promoting Source Reduction Behavior ; The Role of Motivational Information. *Environment and Behavior*25, 70-85.
 - 21) De Young(1993). Changing Behavior and Making it Stick ; The Conceptualization and Management of Conservation Behavior. *Environment and Behavior* 25, 485-505.
 - 22) Dunlap, R.E. & Van Liere, K.D.(1977). Land Ethic or Golden Rule : 'Comment on Land Ethic Realized' by Thomas A.Heberlein. *Journal of Social Issues*33, 200-207.
 - 23) Eric Howenstine(1993). Market Sefmentation for Recycling. *Environment and Behavior*25, 86-102.
 - 24) Granzin, Kent L. & Janeen, E. Olsen(1991). Characterizing Participants in Activities Protecting the Environment : A Focus on Donation, Recycling, and Conservation Behaviors.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Marketing*10, 1-27.
 - 25) Harrell, G.D. & Mcconocha, D.M.(1992). Personal Factors Related to Consumer Product Disposal Tendencie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97-417.
 - 26) Heberlein, T.A. & J.S. Black(1981). Cognitive Consistency and Environmental Action. *Environment and Behavior*13, 717-734.
 - 27) Hopper, J.R. & Joyce Mccarlnielsen(1991). Recycling as Altruistic Behavior : Normative and Behavioral Strategies to Expand Participation in a Community Recycling Program. *Environment and Behavior*23, 195-220.
 - 28) Jackson, John E.(1983). Measuring the Demand for Environmental Quality with Survey Data. *Journal of Politics*65, 335-350.
 - 29) Jacoby Jacob(1976). Consumer Research : Telling It Like It I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3, 1-11.
 - 30) Jacoby Jacob, Carol K. Berning and Thomas F. Dietvorst(1977). What About Disposition ? .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April. 22-28.
 - 31) James W. Hanson(1980). A Proposed Paradigm for Consumer Product Disposition Proces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summer. 49-67.
 - 32) Joachim Schahn & Erwin Holzer(1990). Studies of individual Environmental Concern : The Role of

- Knowledge, Gender and Background Variables. *Environment and Behavior* 22, 767-786.
- 33) Lewis R. Tucker, J.R.(1980). Identifying th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nsumer : The Role of Internal-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winter. 327-340.
- 34) M. Debell & R. Dardis(1979). Extending Product Life : Technology Isn't The Only Issu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46, 381-385.
- 35) Neuman, Keith(1986). Personal Values and Commitment to Energy Conserveation. *Environment and Behavior* 18, 798-815.
- 36) Nicosia, Franceso M. & Robert N.Mayer(1976). Toward a Sociology of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5-75.
- 37) Nielsen, J.M. & Ellington, B.L.(1983). Social Processes and Resource Conserveation in N.R. Feimer & E.S.Geller(Eds.). *Environmental Psychology : Directions and Perspectives*. 288-312.
- 38) Paul C. Stern, Thomas Dietz, & Linda Kalof(1993). Value orientations, Gender, and Environmental Concern. *Environment and Behavior*. 25, 322-348.
- 39) Peters, W.H.(1974). Who Cooperates in Voluntary Recycling Efforts ? . Proceedings of the 36th Combined Conferenc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505-508.
- 40) Schahn, J & Holzer E.(1990). Studis of Individual Environmental Concern ; The Role of Knowledge, Gender, and Background Variables. *Environment and Behavior*. 22, 767-786
- 41) Schwartz, Robert A.(1970). Personal Philanthropic Contribu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8(6), 1264-1291.
- 42) Smith, Scott M.(1979). Giving to Charitable Organizations : A Behavioral Review and a Framework for Increasing Commitmen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7.
- 43) Stampfl, R.W.(1978). The Postindustrial-age Consumer. *Journal of Home Economics*. 25-28.
- 44) Van Liere. Kent D. & Riley E. Dunlap(1980). The Social Bases of Environmental Concern : A Review of Hypotheses, Explan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ublic Opinion Quarterly*. 44, 181-197.
- 45) Vining, Joanne & Angela Ebreo(1990), What Makes a Recycle ? : A Comparison of Recyclers and Nonrecyclers. *Environment and Behavior*. 22, 55-73.
- 46) Weigel R.H. & Weigel J.(1978). Environmental Concern :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Environment and Behavior*. 10, 3-15.
- 47) Zikmund,W.G. & Stanton, W.J.(1971). Recycling Solid Wastes : A channels-of-distribution Problem. *Journal of Marketing*. 35, July. 34-39.